

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, 우기 대비 배수장·배수갑문 사전점검 실시

[김준혁]

극한호우·태풍 대비...펌프·전동기·CCTV·수문 등 주요 시설 면밀 점검
급경사지 취약 시설 집중 점검·수리시설 감시원 안전교육도 병행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소포배수장 시설물 점검 [사진제공=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]

[폴리뉴스 김준혁(=호남)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극한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배수장과 배수갑문 시설물 사전점검을 실시했다.

진도지사는 1일 관내 배수장과 배수갑문을 대상으로 펌프·전동기·CCTV·수문·권양기 작동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. 재난 상황 발생 시 시설물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.

특히 집중호우 시 취약 시설인 급경사지를 집중 점검하고 수리시설 감시원을 대상으로 시설물 가동 및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.

최진 진도지사장은 "철저한 우기 대비가 우리의 안전과 일터를 지키며 작은 틈새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"며 "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 배수시설 및 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"고 말했다. 이어 "재해 예방을 통해 안전한 농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덧붙였다.